

한동훈 비대위 출범 임박에 민주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

민주·국힘 지지율 2%대 좁혀져...민주 41.6%·국힘 39% 정청래 "한동훈 효과? 지지율 떨어지면 한 역효과나" 박용진 "9회말 2아웃 후회없이 휘두르다 삼진아웃"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

25일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한동훈 띄우기 눈물겹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지율 올라서 한동훈 효과라면 지지율 떨어지면 한동훈 역효과라고 쓸건가"라며 "두고봐라. 한동훈 효과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등판 효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대폭 좁혀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올렸다.

그는 "한동훈이 윤석열을 밟고 이겨야 지지율 모멘텀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정권심판론을 던지고 정권 밀어주기 여론이 형성될텐데 이게 가능한가"라며 "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고 한동훈의 적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은 윤석열을 이길 수 없고 한동훈은 정권심판론의 국민 분노를 극복할 수 없다"며 "한동훈은 황교안처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처럼 1일 1실언에 플러스 1일 1오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한동훈식 야구는 삼진아웃으로 가는 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데 대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면 후회 없이 휘두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동훈식 야구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후회 없이 휘두르면 그냥 삼진아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무거나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상대가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다 대야 상대 봐가면서 그 기준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삼진아웃"이라며 "대통령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할 말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뻔히 보이는 의혹도 눈감고 몰가 공작이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에서 타락한 검사 한동훈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법률 전문가 한동훈으로만 끝나게 될 것"이라며 "그냥 삼진아웃으로 야구 경기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린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단 관심 돌리기 전략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웠는데 경륜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의절할 각오가 돼 있느냐 혹은 그런 걸 짜고서 국민 기망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소위 약속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다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에서 와서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새롭게 하기 정도의 방법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 의원은 "관심 돌리기 전략이지 본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초반 한 1~2주일은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총선 투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2퍼센트(%)대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은 3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p)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이른바 '한동훈 효과'로 풀이된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응답률은 3.0%·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한 전 장관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오는 27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희면 기자

정달성 복구의원,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 개최



광주 복구의원 정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봉·매곡·삼가·일곡)은 지난 18일 남도향토 음식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광주 복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45 탄소중립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달성 의원이 좌장을 맡고 오병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연구개발실장이 '광주광역시 복구 탄소중립계획 수립 방향 제안'을 발제했으며, △유니미 일곡전환마을 네트워크 대표 △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국장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숙희 광주복구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장 △이숙희 복구의원 의원 △이정환 복구정 기후환경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삼가 매곡 일곡 문흥 오지동의 마을네트워크 및 마을활동가, 광주 녹소연 등 각 분야별 관계자들 또한 참석하여 김형수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복구에 맞는 탄소중립 종합 대책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오병철 연구개발실장은 "복구 온실 배출량을 언급하면서 탄소중립 도시에 따른 광주 복구 미래상을 위해 연도별·부분별 감축 전략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숙희 복구의원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5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자원순환,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관리 유지 및 확대, 녹색교통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숙희 기자

민주 "김건희 여사 성역 아냐"...28일 특검법 처리 추진 재확인



"윤, 여당 총선 후 특검 수용 가능성에 격노한 걸로 전해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필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특검의 시기와 일부 조항만 해소된다면 여권이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특검법을 재단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며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수권 기자

다.

그는 "김건희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인가.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을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며 "국민이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주가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그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실시간 브리핑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예외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 또 "땀땀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수권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